

주현절 후 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1년 1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08 장 “주와 같이 되기를” (새 45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 번 시편(Psalm) 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 Corinthians) 3:1-9	박경림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0) – 성숙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Maturity)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집착을, 배려가 아닌 자기 주장을,

섬김이 아닌 교만을, 드러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세상적 안락함과 신앙의 타성에 젖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6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 이니라.” (한글개역 고전 3:6-7)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made it grow. So neither he who plants nor h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NIV 1 Corinthians 3:6-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7 (주일)	1/18 (월)	1/19 (화)	1/20 (수)	1/21 (목)	1/22 (금)	1/23 (토)
	창18	창19	창20	창21	창22	창23	창24
본문	마17	마18	마19	마20	마21	마22	마23
	느7	느8	느9	느10	느11	느12	느13
	행17	행18	행19	행20	행21	행22	행23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0 오후7:30)	“이미 구원받았으니 문제없는가?” (엡25:8)
토요 새벽기도회 (1/23 오전6:30)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나”(시23:1-6)

지난 주일(1/10, 임직감사주일)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9) – 섬김으로” (막 10:42-52)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9:35)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막10:42-52)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섬김 즉, 성경적 의미의 섬김은 1)첫째, 세상과 다른 방향,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막10:43-44), 이를 위해 우리는 ‘섬김의 훈련’이 요구되고, 2)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영적인 민감함(영적 감수성)으로 이어지는 섬김으로서, 이는 소경 바디매오의 외침에 직접 반응하셨던 예수님 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막10:46-48), 3)셋째,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필요가 채워지고,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로서 (막10:51-52), 결국 이러한 섬김을 통해, 서로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함께 주님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도 자신의 책(영적훈련과 성장)에서 ‘섬김을 통해, 1) 우리 안에 겸손이 자리잡게 되고, 2)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게 되며, 3) 우리 삶의 수 많은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4)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기쁨을 알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만나는 교회’를 준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귀한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실천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